

본회 특유의 사업체로서
독립체제 지향은 바람직

위원장 홍영숙
<적십자 간호학교장>

그간 여러종목의 교제와 참고서를 발행한 본회 출판사업은 그 번대로 순조로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관 준공과 함께 총회에서 결의된 회원들의 회리부담억제는 부득이 출판기금에서 경상비와 회지인 「대한 간호」 제작비 마저 부담하게 되고 저자에 대한 알파한 대우와 협회명예운동 까다로운 절차는 저자들의 과중한 부담뿐 의면되어 사업은 침체상태를 초래해 이제는 두세개의 교제 이외에는 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널리 퍼진 「비한간호」회지의 증이 품질을 높이고자 헌냈든 우리 위원들의 간절한 소망은 세계적인 유투파동으로 말미암아 악화일로에 놓여지고 그나마 예년과 같이 적월간으로 나오면서도 약 900만원(15,000부)의 제작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전문학교의 개편은 간호학 교제로 하여금 새로운 체제의 내용의 것으로 요구도 하고 있어 많은 출판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다행인지 의로인지 면허갱신은 본회로 하여금 회원증가와 회비수입의 다

소 증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출판부의 그간의 출현을 만회하여 저자의 대우 개선, 교제의 정보수집, 신속발행, 박리다매, 기타 교제 이외의 다목적 출판을 강구하여 생산과 수익을 겸비한 협회 특유의 사업체로서 독립체제를 지향코져 그에 대한 방안 조치를 본회 정관에 신설삽입, 총회의 결의를 얻고져 준비를 했 습니다.

본회의 출판사업의 번영은 여러분들의 회비 일부를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지는 여러분의 열람이며 여러분의 소티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감격스러운 일들을 글지어 함께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서전이나 회고록 등을 읽어보실 회원님들은 안제신지, 후배들을 위한 증언도,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책 발행은 꼭 출판부를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어려움 속에서 시종일관 분투 노력하신 부장 임영자선생님께 위원일등을 대포하여 치하를 드리며 부족한 저와 함께 2년간 좋은 제언을 하여주신 박소홍 선생님, 김주희 선생님, 이진경 선생님 그리고 최영희 선생님(74년 1월초 도미) 각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